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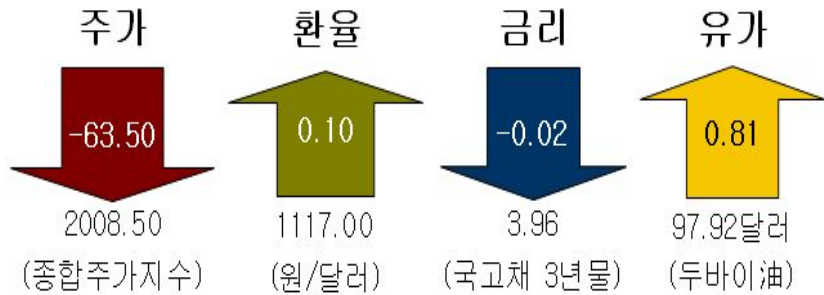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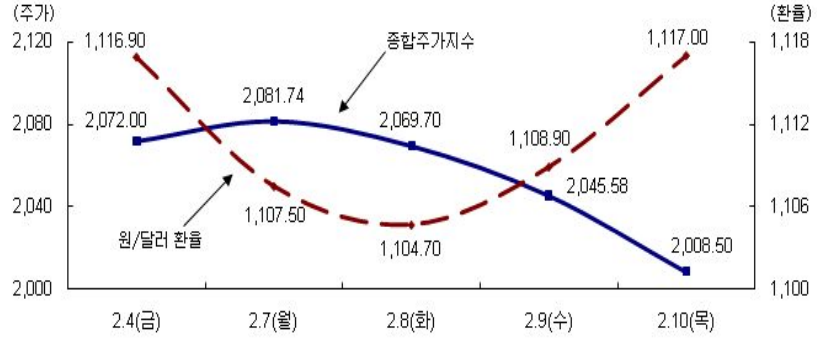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  
- 중고령, 저소득가계 위험하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4~2.1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	
- 중고령, 저소득 가계 위험하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박 덕 배 전문 연구 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 : 중고령, 저소득 가계 위험하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가계 자산 부채 조사를 토대로 금융위기 전(2006.5)과 후(2010.2)의 가계 재무상태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가계 순자산이 평균 1,159만원 축소되었다. 전반적으로 가계 재무상태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저축액이 감소하면서 가계 재무구조의 질적 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보증금 증가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고, 전월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금융부채 금융자산 비율이 2006년 63%에서 2010년 71%로 크게 높아졌다.

**둘째, 40대 이상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세대 간 자산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40대 이상 가계와 달리 부동산보유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 가계의 경우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40대 이상 가계의 부채 증가가 30대 이하 가계의 전월세보증금 자산으로 전달되는 '세대 간 자산 이동'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소득 1~2 분위 저소득 계층의 경우 부채 감소폭보다 자산 감소폭이 커서 가계 순자산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소득 최상위 계층인 4, 5위의 경우 순자산 감소폭은 미미하다.

**넷째, 가장의 교육정도별로 보면, 저학력자의 노후대비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대졸이상'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들은 부동산을 줄이고 대신 금융저축을 늘리고 있지만, 저학력의 경우 금융저축은 줄이고 부동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금융자산이 필요한 노령기 대비에 역행하고 있다.

**다섯째, 입주형태별로 보면, 自家 가계의 금융저축 감소와 달리 전세 가계의 금융저축은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보유의 기회손실이 커지고 있다.** 自家 입주자의 경우 순자산이 1,207만원 줄었지만, 전세 입주자의 경우 큰 폭의 금융저축 증가에 힘입어 순자산이 2,780만원 늘었다.

위와 같은 가계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고령화 사회 대비와 서민경제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 중고령 가계와 저학력·저소득층 가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도한 전월세보증금을 줄이고, 그 여유분을 금융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 10%가 넘는 월세이율(利率)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시장금리 수준에 연동되는 서구식 임대사업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높은 비중의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고령자 및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래 자산가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금융위기 이후 가계 재무상태 악화

### ○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음

- 금융위기에도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그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자산가치 회복 등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작지 않음
  - 국내 가계신용은 2008년 57.6조원, 2009년 45.4조원, 2010년(1~6월) 21.1조원 증가하여 2010년 9월말 현재 770.0조원을 기록
  -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영향이 당장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
  - 그러나 금융자산 급증, 실물자산 가치 안정 등 자산적인 측면 등에서 아직 우려의 상황이 아니라는 긍정의 견해도 상존

### ○ 금융위기 이후 가계 평균자산은 줄고, 평균부채는 늘어나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면서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됨

- 통계청의 가계 자산/부채 조사를 비교함으로써 금융위기 전(2006.5)과 후(2010.2)의 가계 재무상태(B/S)의 변화를 살펴본 후 시사점 도출 가능<sup>1)</sup>
  -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2008년 하반기에 발발하였지만 금융위기가 감지된 시점은 2007년부터이며, 금융위기의 영향이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
  - 금융위기 영향기의 특수한 상황이 제외된 두 시점 비교를 통해 금융위기 전후의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가계 자산/부채 변화를 읽을 수 있음
- 국내 가계 평균자산은 주로 부동산 자산의 감소로 금융위기 이전 보다 약 844만원 감소한 27,268만원으로 조사
  - 2006년 5월 31일 현재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 8,112만원(부동산 76.8%, 금융자산 20.4%)

1)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분포 및 구성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역사상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1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사 발표하였으며, 2007년의 발표는 2006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하였으며, 2010년의 발표는 2010년 2월 28일 현재를 기준함(2010년의 경우 2007년과 달리 가계의 미시적 재무건전성 파악 목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분석이 포함)

- 2010년 2월 28일 현재 가구당 평균 총자산 2억 7,268만원(부동산 75.8%, 금융자산 21.4%)
  - \* 금융자산 저축액은 적립식 저축과 펀드, 저축성 및 만기 시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보장성 보험, 현금 예치식 저축 및 펀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 불입한 껌돈 등도 포함
- 국내 전 가구의 가계 평균부채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증가로 인하여 금융위기 이전 보다 315만원 증가한 4,263만원으로 조사
  - 2006년 5월 31일 현재 가구당 평균부채 3,948만원을 기록(금융부채가 73.0%, 임대보증금이 27.0%)
  - 2010년 2월 28일 현재 가구당 평균부채가 금융위기 전보다 315만원 많은 4,263만원을 기록(금융부채가 67.6%, 임대보증금이 32.4%)
    - \* 금융부채는 각종 금융대출, 외상 및 할부, 껌돈 미불입금 등임.
    - \*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금액으로 향후 지불해야 될 금액임.
- 가계 순자산(자산-부채)은 2006년 2억 4,164만원에서 2010년 2억 3,005만원으로 평균 1,159만원 4.7% 감소
  - 두 시점(약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12.1%를 고려하면 실질 가계 순자산은 약 17% 감소

〈 금융위기 전후 가계 재무상태 변화 〉

(단위 : 만원, %)

	2006년		2010년	
총자산	28,112	(100.0)	27,268	(100.0)
o 금융자산	o 5,745	(20.4)	o 5,828	(21.4)
· 저축액	· 4,570	(16.3)	· 4,089	(15.0)
· 전월세보증금	· 1,175	(4.1)	· 1,739	(6.4)
o 부동산	o 21,604	(76.8)	o 20,661	(75.8)
o 기타 자산(자동차, 회원권 등)	o 764	(2.7)	o 779	(2.7)
총부채	3,948	(100.0)	4,263	(100.0)
o 금융부채	o 2,881	(73.0)	o 2,884	(67.6)
o 임대보증금	o 1,067	(27.0)	o 1,380	(32.4)
순자산	24,164		23,005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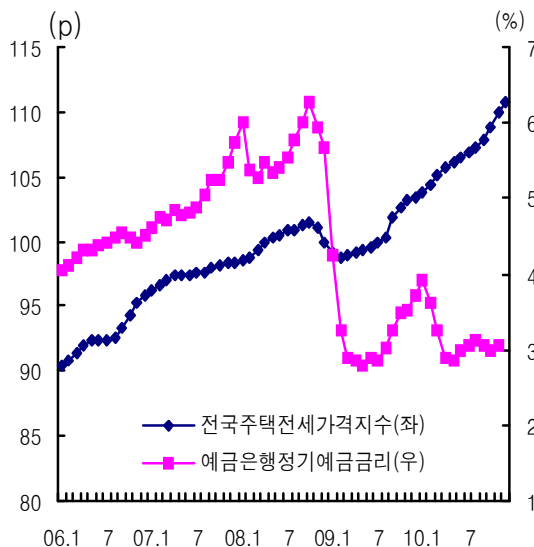
주 1 : ( )안은 구성비임.

## 2.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

① (재무구조 질적 악화) 전반적으로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전월 세보증금 증가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고, 순수 금융부채/금융 자산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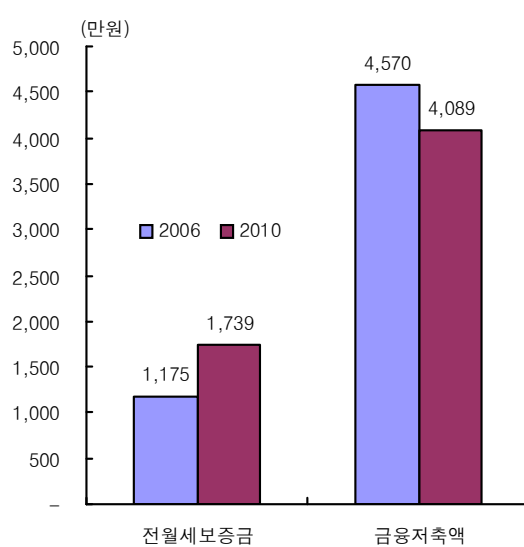
-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보증금이 늘어나 가계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
  - 2010년 2월 28일 시점의 국민은행 전국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06년 5월 31일 시점 보다 약 14% 상승
  - 2006년에 비해 2010년 전월세보증금(2006년 1,175만원에서 2010년 1,739만원으로 증가)이 564만원 증가한 대신 금리하락 등에 따른 저축동기 약화 등으로 금융저축액은 481만원 감소
-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부동산 성격의 전월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
  - 금융부채/금융자산(금융저축액+전월세보증금포함) 비율은 2006년 50.2%에서 2010년 49.5%로 소폭 하락
  - 금융부채/금융저축액 비율은 2006년 63%에서 2010년 71%로 큰 폭 상승

< 전세가격지수 및 정기예금금리 추이 >



자료 : BOK, KB금융

< 전월세보증금 및 금융저축액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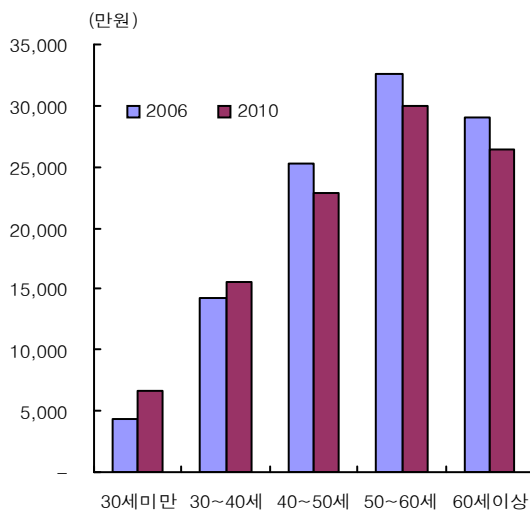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② ('세대간 자산 이동' 진행) 가장(家長) 연령별로 40대 이상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세대간 자산 이동'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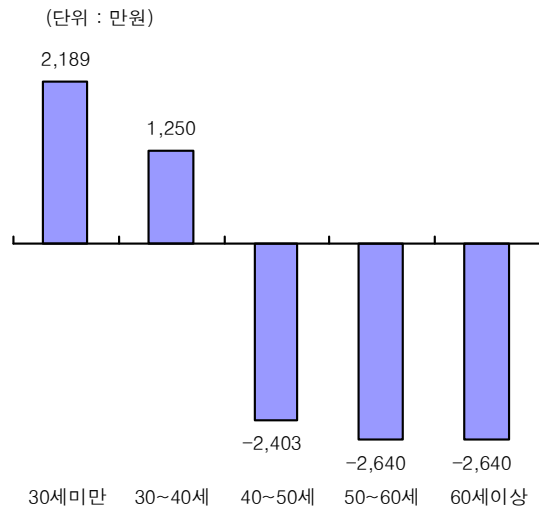
- (가계 자산) 30대 이하는 위기 전보다 늘어난 대신 40대 이상은 줄어들음
  - 위기 전보다 30세미만 2,138만원, 30~40세 1,340만원 증가하고, 40~50세 2,004만원, 50~60세 1,395만원, 60세 이상 2,583만원 감소함
- (가계 부채) 30대 이하는 줄거나 큰 변화가 없지만 40대 이상은 큰 폭 증가
  - 위기 전보다 30세 미만 51만원 감소한 반면 30~40세 90만원, 40~50세 398만원, 50~60세 1,245만원, 60세 이상 56만원 증가
- (가계 순자산) 30대 이하는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세대간 자산 이동' 현상이 대두
  - 부동산보유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 가계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자산이 늘면서 순자산이 오히려 증가(특히 30세 미만의 경우 2,189만원의 큰 폭 증가)
  - 반면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40대 이상 가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 하락으로 순자산이 약 2,500만원 감소
  - 전세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40대 이상 가계의 부채 증가가 30대 이하 가계의 전월세보증금 자산으로 전달되는 '세대 간 자산 이동' 현상이 진행

< 연령별 가계 순자산 변화 >



자료 : 통계청

< 연령별 가계 순자산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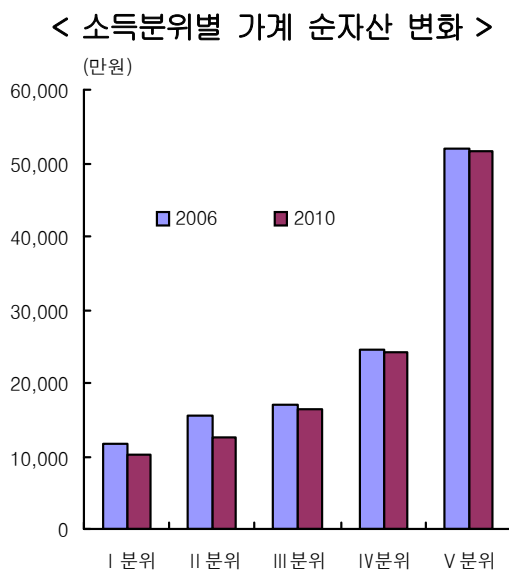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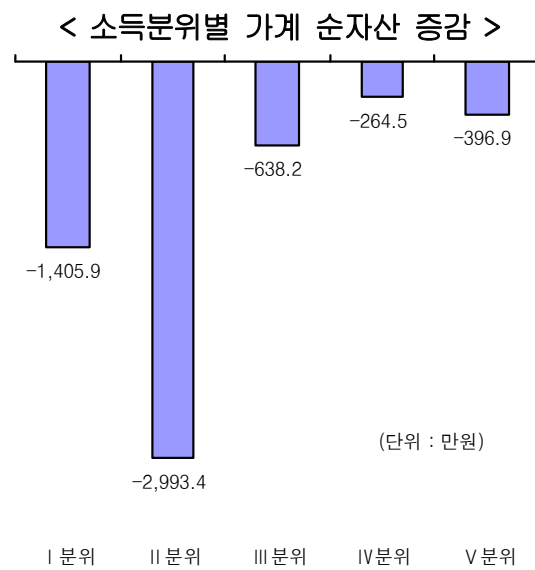
2) <참고 1>의 '연령별 가계 자산 및 부채' 분석

③ (‘부의 양극화’ 심화) 소득 1~2 분위 저소득 계층의 경우 부채 감소폭 보다 자산 감소폭이 커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증가폭에 비해 자산증가폭이 커서 재무상태 악화가 미약함<sup>3)</sup>

- (가계 자산) 소득 4분위 이하는 감소한 대신 5분위는 큰 폭으로 증가
  - 소득 1분위 1,944만원, 2분위 3,243만원, 3분위 502만원, 4분위 317만원 감소 하였으나, 소득 5분위는 1,876만원 증가
- (가계 부채) 소득 2분위 이하는 감소한 대신 5분위는 크게 증가
  - 소득 1분위 538만원, 2분위 249만원 감소하였고, 소득 3~4분위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으며, 소득 5분위의 경우 2,273만원 큰 폭 증가
- (가계 순자산) 소득 쏠분위별에 걸쳐 감소하였으나, 특히 하위 분위의 감소폭이 상위 분위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커 ‘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 1~2 분위의 가계 순자산은 금융저축액 감소와 임대보증금 증가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고, 특히 2분위 감소폭은 1분위보다 큰 2,993만원에 이름
  - 3분위부터 가계순자산 감소폭은 급락하였으며, 소득 최상위 계층인 4, 5분위의 경우 순자산 감소폭이 각기 265만원, 397만원에 그침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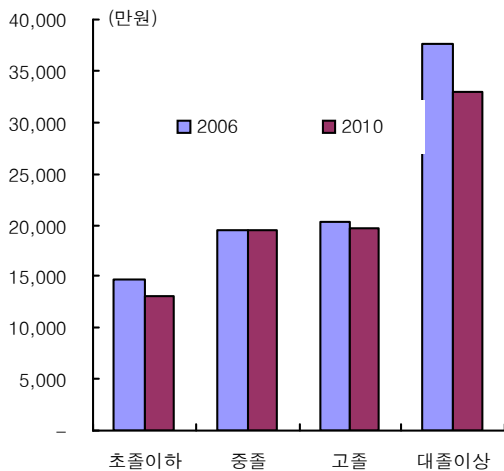
3) <참고 2>의 ‘소득분위별 가계 자산 및 부채’ 분석



④ (저학력자의 노후대비 취약) '대졸이상'의 순자산 감소가 가장 컸지만, 자산구조의 변화를 보면 저학력자의 노후생활 대비가 매우 취약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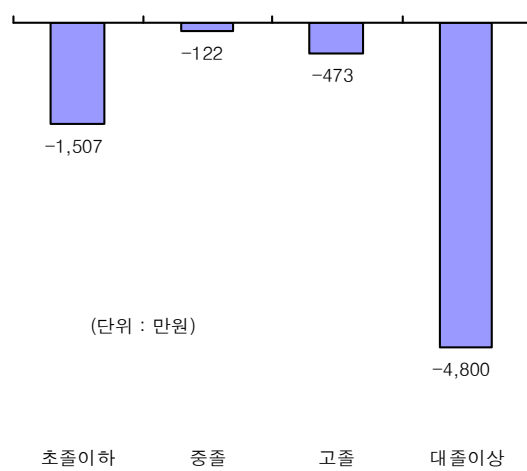
- 가장의 수교육정도별에 걸쳐 가계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대졸이상'의 순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초졸이하'가 두 번째로 큰 폭 감소
  - 저학력일수록 부동산 보다는 금융저축액 감소로 순자산이 감소, 특히 '초졸이하'의 경우 금융저축액의 큰 폭 감소로 순자산이 1,507만원 감소함
  - 고학력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순자산이 감소, 특히 '대졸이상'의 경우 부동산 자산의 큰 폭 축소로 순자산이 4,800만원 감소
- 교육정도별로 고학력 보다 저학력이 노후생활 대비가 더욱 어려워 짐
  - 전반적으로 '대졸이상' 고학력이 부동산을 줄이고 대신 금융저축을 늘리고 있는 반면 저학력의 경우 금융저축은 줄이고 부동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음

< 교육정도별 가계 순자산 변화 >



자료 : 통계청

< 교육정도별 가계 순자산 증감 >



자료 : 통계청

< 교육정도별 가계 자산 구성 비율의 변화 >

(단위: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금융저축액	15.5 → 10.4	16.6 → 12.1	17.0 → 14.5	15.9 → 16.1
전월세보증금	3.1 → 3.3	2.3 → 3.2	4.1 → 9.0	4.9 → 7.8
부동산	80.0 → 85.0	79.1 → 82.7	76.3 → 73.4	76.0 → 72.8

자료 : 통계청

⑤ (주택보유의 기회손실 증가) 전세 입주자의 큰 폭 금융저축 증가에 힘입어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自家 입주자의 경우 금융저축 감소로 순자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음

- 전세 가계의 경우 부채증가폭보다 자산 증가폭이 월등히 커 순자산이 2,779.9만원 큰 폭 증가
  - 자산의 경우 전월세보증금이 큰 폭으로 늘은 데다 부동산 자산과 금융저축액도 작지 않게 증가하여 3,535.7만원 증가
  - 부채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소폭 늘었지만 금융부채가 오히려 줄어 755.8만원 증가에 그침
- 반면, 자가 입주 가계의 경우 자산이 크게 줄고, 부채가 늘어나 순자산이 1,206.8만원 큰 폭 축소
  -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금융저축액이 크게 줄어 828.5만원 줄음
  - 반면 부채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금융부채가 동시에 늘어나 378.5만원 늘음

< 입주형태별 가계 재무상태 변화 >

(단위 : 만원)

	自家		전세	
	2006	2010	2006	2010
총자산	38,361.2	37,532.7	17,425.1	20,960.8
o 금융자산	5,830.6	5,176.9	8,357.9	11,190.3
· 저축액	5,830.6	5,176.9	3,410.2	3,693.3
· 전월세보증금			4,947.7	7,497.0
o 부동산	31,556.3	31,394.9	8,504.9	9,034.3
총부채	4,840.2	5,218.7	3,424.1	4,179.9
o 금융부채	3,606.3	3,742.9	2,207.7	2,173.8
o 임대보증금	1,233.9	1,475.7	1,216.4	2,006.1
순자산 변화	- 1,206.8		2,779.9	

자료 : 통계청

주 : 기타자산은 생략

### 3. 시사점과 대응 과제

#### ○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계 재무상태 악화는 고령화 사회 대비, 서민경제 회복 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40대 이상의 중고령 가계의 고령화 사회에 적절하지 못한 재무구조가 고착
  -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개선되어야 할 40대 이후의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
  - 전월세보증금을 부동산으로 분류할 경우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90%에 육박<sup>4)</sup>
  - 특히 '대출이상' 고학력이 부동산을 줄이고 대신 금융저축을 늘리고 있는 반면 저학력의 경우 금융저축은 줄이고 부동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저학력자의 노후생활 대비가 더욱 어려워 짐
  - 특히 막 은퇴시기가 도래한 국내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시급
- 저소득층 및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서민경제 위축 지속 가능성
  - 소득 하위 분위 가계 순자산 감소가 큰 반면 상위 분위 가계 순자산 감소는 미미한 가운데 향후 자산가치 상승 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전세가격 상승으로 30대 이하 가계의 전월세보증금을 위해 40대 이상 가계의 부채 증가가 이어지면서 이들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
  - 서민경제 약화로 인한 사회불안은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음

#### ○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

4) 독특한 전세제도도 인한 높은 전월세보증금이 통계상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으로 분류할 경우 세계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국내 가계의 평균 실물자산 비중이 85%로 가장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15%로 가장 낮음

- 높은 비중의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
  -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이 높고 표준화가 잘된 아파트 비중이 커 다른 나라에 비해 역모기지가 빨리 발달할 수 있는 환경
  - 중장기적으로 금리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고령자 및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래 자산가치의 변화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 전세가격 안정과 전세제도 개선을 통하여 전월세보증금을 금융 저축액으로 전환시킬 필요
  - 연 10%가 넘는 월세이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임대이율이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진 서구식 임대사업을 도입
  - 고정된 막대한 전세자금이 유통될 경우 그 만큼 자금여유가 늘어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될 수 있음
  - 저소득 계층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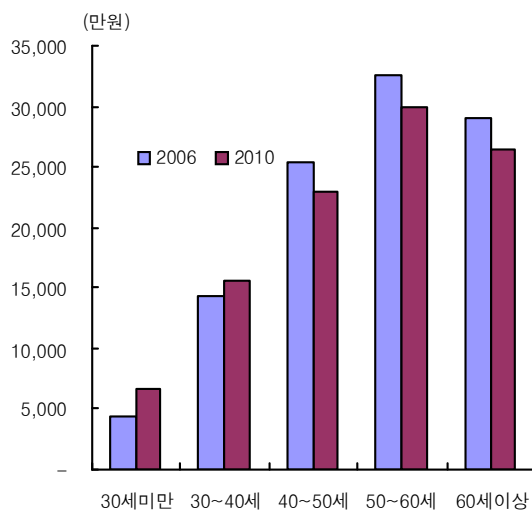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02-2072-6216)

< 참조 1 > 연령별 가계 자산 및 부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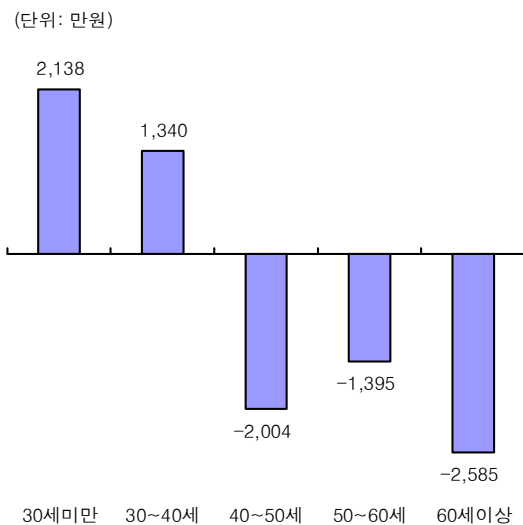
○ (가계자산) 가장(家長) 연령별로 40대 이하는 위기 전보다 늘어난 대신 50대 이상은 줄어들음

- 위기 이전보다 30세미만 2,138만원, 30~40세 1,340만원 증가하고, 40~50세 2,004만원, 50~60세 1,395만원, 60세 이상 2,583만원 감소함
- 부동산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40대 이하는 부동산자산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보증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이 늘어남
- 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보유 비율이 높은 40대 이상은 전월세보증금 증가보다도 부동산자산 하락으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은 부동산보다도 금융저축액 감소에 의해 자산이 하락함

< 연령별 가계자산 변화 >



< 연령별 가계자산 증감 >



< 연령별 가계 자산 구성 비율의 변화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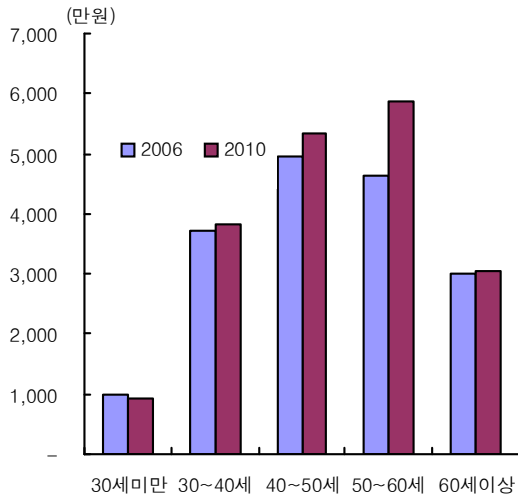
	30세 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세이상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금융저축액	24.9 → 24.9	20.3 → 17.8	17.6 → 17.4	15.8 → 15.3	12.7 → 10.9
전월세보증금	28.7 → 30.8	10.9 → 15.2	4.7 → 8.4	1.8 → 3.4	1.9 → 2.0
부동산	39.5 → 37.2	64.4 → 62.6	74.7 → 70.7	79.8 → 78.6	84.4 → 85.2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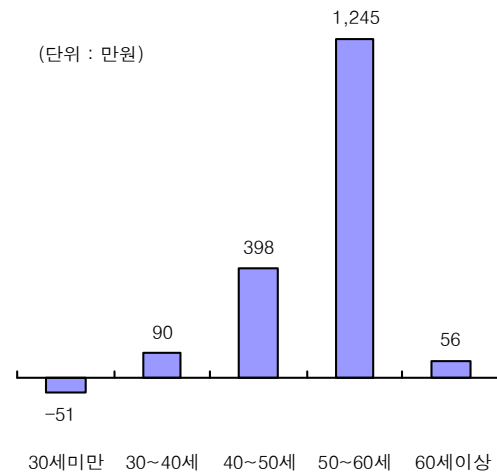
○ (가계부채) 가장 연령별로 40대 이하는 위기 전보다 늘어난 대신 50대 이상은 줄어듦

- 위기 전보다 30세 미만 51만원 감소한 반면 30세 이상은 모두 증가 (30~40세 90만원, 40~50세 398만원, 50~60세 1,245만원, 60세 이상 56만원 증가)
  - 상대적으로 부동산 보유 비율이 낮은 40대 미만은 임대보증금 부담이 낮아 큰 변화가 없음
  - 40대 이상부터는 금융부채 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 특히 이런 경향은 50~60세에서 뚜렷함

< 연령별 가계부채 변화 >



< 연령별 가계부채 증감 >



< 연령별 가계 부채 구성 비율 변화 >

(단위: %)

	30세 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세이상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금융부채	91.3 → 91.5	80.6 → 75.8	76.1 → 71.3	70.5 → 68.9	59.4 → 51.6
임대보증금	8.7 → 8.5	19.4 → 24.2	23.9 → 28.7	29.5 → 31.1	40.6 →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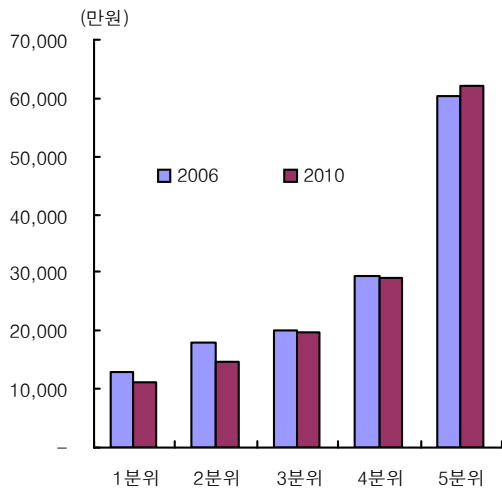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참조 2 > 소득분위별 가계 자산 및 부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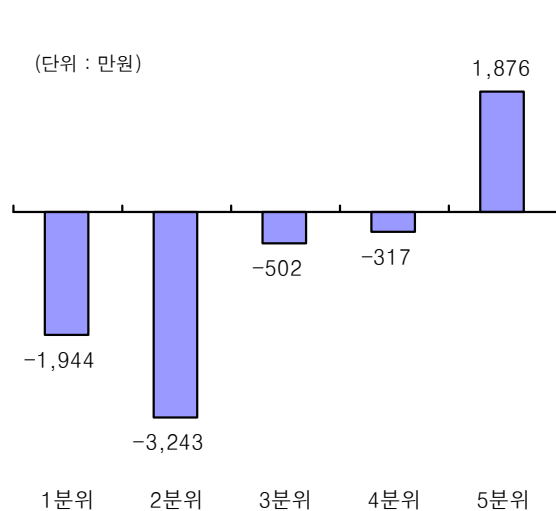
○ (가계자산) 소득 4분위 이하는 위기 전보다 감소한 대신 5분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위기 전보다 1분위 1,944만원, 2분위 3,243만원, 3분위 502만원, 4분위 317만원 감소하였으나, 5분위는 1,876만원 증가함
  - 상대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최하위 1~2 분위는 전월세보증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저축액이 크게 낮아져 큰 폭으로 자산이 감소함 (1분위의 경우 부동산자산 상승으로 인하여 2분위보다 감소폭이 작아짐)
  - 중간층 3~4분위는 전월세보증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자산의 하락으로 인하여 자산이 소폭 하락함
  - 반면 상대적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의 경우 부동산 자산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은 금융저축액이 늘어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

< 소득분위별 가계자산 변화 >



< 소득분위별 가계자산 증감 >



< 소득분위별 자산 구성 비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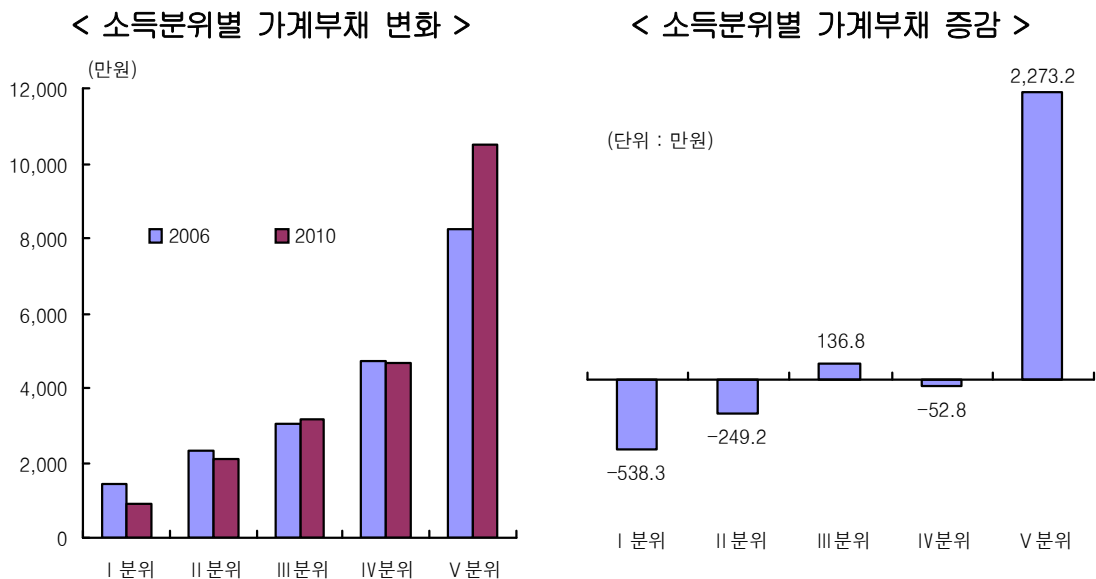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2006 → 2010
금융저축액	14.8 → 9.8	15.3 → 11.8	18.0 → 14.5	16.4 → 15.5	16.2 → 16.6
전월세보증금	4.4 → 6.0	6.0 → 8.2	5.2 → 9.0	5.1 → 8.0	2.8 → 4.4
부동산	79.4 → 83.3	76.8 → 77.7	74.1 → 73.4	75.6 → 73.4	77.9 → 75.8

자료 : 통계청

○ (가계부채) 2분위 이하는 위기 전보다 감소한 대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큰 폭 증가함

- 위기 전보다 1분위 538만원, 2분위 249만원 감소하였고, 3~4분위의 변동폭은 커지 않았고, 단, 5분위의 경우 2,273만원 큰 폭 증가
  - 전반적으로 금융부채(임대보증금) 비중은 중간분위(2~4분위)가 높고(낮고), 소득이 가장 낮거나 높은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금융부채 비중이 낮음
  - 구성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부채(임대보증금)의 비중은 크게 낮아(높아)졌는데, 이러한 추세는 저소득층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분위별 부채 구성 비율 변화 >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 2010	2007 → 2010	2007 → 2010	2007 → 2010	2007 → 2010
금융부채	70.6 → 61.1	74.7 → 67.3	75.8 → 67.2	76.4 → 69.0	69.9 → 67.8
임대보증금	29.4 → 38.9	25.3 → 32.7	24.2 → 32.8	23.6 → 31.0	30.1 → 32.2

자료 : 통계청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3.0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	1.5
일본	-6.3	-19.9	11.3	-1.2	5.7	4.3	6.8	3.0	4.5	-	1.6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1	8.1	7.2	4.4	4.8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4일	2월1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64	3.70	0.06%p
	엔/달러	92.93	88.43	81.19	82.18	82.23	0.05¥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581	1.3603	0.002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092	12,229	137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544	10,606	6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98	3.96	-0.02%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16.9	1,117.0	0.1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072.0	2,008.5	-63.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4일	2월1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9.01	86.69	-2.32\$
	Dubai	78.06	73.14	88.80	97.11	97.92	0.81\$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8.92	339.95	1.0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